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38년의 장년으로 성장한 우리 교회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특히 저녁 7시에는 임마누엘찬양대(대장 이창호 장로, 지휘 조신욱 집사, 반주 김윤경 집사)의 주관으로 기념음악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향도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천국일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구제에 더욱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자.

한편 교육위원회에서는 성경암송대회, 성극경연대회, 웅변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일정은 아래와 같다.

를 개최하는데, 그 일정은 아래와 같다.

행사명	내 용	장 소
성경암송대회	1. 일시: 10. 6 (주일) 2. 암송범위: (1) 영아·유치·초·중·고·대학부: 요 1: 1~18 (2) 초등1·2·3부: 요 1 (3) 초등4·5·6부: 요 1~2 (4) 중·고·대·청1·2·3·청년1·2·3·4부: 요 1~3 3. 신청마감일: 9. 15 (주일)	각 교회학교에 배설
성극경연대회	1. 일시: 10. 25 (금) ~ 26 (토) 2. 참가부문: (1) 아동부문: 초등6부 이하 (2) 학생부문: 중·고등부 (3) 성인부문: 대학부 이상 3. 신청마감일: 9. 15 (주일) 4. 참가요령: (1) 소 제: 복음주의적 작품 (2) 공연시간: 15분 이내 (3) 대본제출: 9. 22 (주일) 까지	갈릴리움
웅변대회	1. 일시: 예선: 10. 20 (주일), 본선: 10. 27 (주일) 2. 참가대상: 초등1부 ~ 청년3부 3. 주 제: 모범적인 교회 생활 4. 제한시간: (1) 초등1부 ~ 고등부: 5분 (2) 대학부 ~ 청년3부: 7분 5. 신청마감: 9. 15 (주일) 6. 원고제출: 10. 6 (주일)	갈릴리움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폐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는 주제 아래 지난 8월 22일(목)부터 진행되었던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가 지난 27일(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두 나라 청년 170명은 새벽기도회, 눈물의 성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막혔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또한 선교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



서 깨달은 바를 서로 토의하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해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헌신과 결단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제4차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 설명회 및 기도회 오늘 IV부예배 후

제4차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가 오는 10월 11일과 12일에 열리게 됨에 따라, 주관 부서인 구제위원회(위원장 노광현 장로)가 오늘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설명회 및 기도회를 소집한다. 이 모임에서는 바자회에 관한 기본적인 안건들이 논의되고, 성도들

의 적극 참여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구장, 지도 교역자,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다락방장, 다락방장, 권찰, 남녀전도회 임원 등 교구 일꾼들이 참석해야 한다.

중등3부

오늘 12시 30분에 학부모 초청 기도회

중등3부(부장 송기홍 장로, 지도 김광국 목사)는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소석관 207호에서 학생들의 바른 신앙 지도와 학업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기도회를 갖는다.

이 시간에는 김광국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를 할 뿐 아니라, 우중철 학생의 간증과 김필래 선생(인현고 교사)의 학습 지도 및 진로 지도에 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지교회 설립 기금 마련되다

우리 교회의 숙원인 북음화면 통일 조국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지난 비전2000운동 기간 중인 8월 24일 금식하면서 모은 금식미 6,442,220원을 북한 지교회 설립 기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로써 북한 지교회 설립 기금은 89년 시온성대행진시 헌금한 18,090,440원을 합친 24,532,660원이다. 동구와 소련을 변화시키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도 개방시켜주시길 날을 바라면서 북한의 북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설립 3주년 맞은 사랑부

사랑부(부장 강모용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는 오늘 성도들을 초청하여 교회학교 설립 3주년 기념 행사를 갖는다. 연혁 및 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암송, 발표하는 순서를 가지며, 소석관 1층에서는 사진전시회도 열게 된다.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는 사랑부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하는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기도와 격려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집사님!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찬송이 설교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차게 하였습니다.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는 열흘 동안의 비전 2000운동 새벽기도로 자신을 정리하고 은혜로 채웠습니다. 이 순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이전보다 몇 배나 깨끗하고 은혜스럽게 들리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새벽기도회에도 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질세라 한 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대원들의 집에 일일이 전화로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는 서둘러 교회로 나와 참가한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다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왜 마음이 이렇게도 뭉클해지는지요.

개인의주의가 교회 안에도 팽배해가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더불어 섬김 생각보다는 각자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태만심까지 있는 이 시대에 집사님의 그 작은 수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적 생명에 대한 강한 열망이 숨어 있어 하늘 상급책에 기록이 되기도 남을 행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8주년 기념음악회는 집사님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뭉쳐져서 되어 더욱 아름답고 장엄한 코러스를 이루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집사님의 평생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과 아삭과 해만의 자손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9. 1

이 중 윤 목사

새벽을 깨운 비전 2000운동 종료



지난 8월 19일(월)부터 10일간을 통하여 21세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 비전2000운동이 지난 28일(수) 승전감사예배를 드림으로 막을 내렸다. 연인원 2만7천명이 모인 가운데 전개된 이 운동에서 성도들은 새벽기도, 금식기도 등

공동의회 소집

충현교회는 공동의회를 아래와같이 소집합니다.

*의 제: 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에 관한 건

*일 시: 91년 9월 8일 IV부 예배 후

*장 소: 본당

*참가자: 충현교회 등록 세례교인

예수님께서 혀를 다스리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혀가 사람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서운 것이어서 잘 다스리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1. 혀의 속성

본문에 의하면 혀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약3:5; 잠16:27, 26:20).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혀가 무서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혀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무섭게 불이 붙어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죄로 인해서 악해져버린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혀는 해아래서 모든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혀가 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불의의 세계를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으로 보았다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망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

제3일

혀를 다스리라 (약3:5~12)

니다.

둘째, 혀는 다른 곳에 죄를 파급시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 온 몸을 더럽히고” 더럽힌다는 것은 얼룩진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가치관을 말로 옮겼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 죄케 말라”(전5:6)고 하였습니다.

셋째, 혀는 침투 영역이 아주 넓습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생의 바퀴란 전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생애의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불살라버리는 위험스런 존재입니다.

혀의 불태우는 파괴력은 지옥 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7)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천지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붙은 혀만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혀를 잘못 활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인격을 파탄으로 몰고가게 됩니다.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부족하고 죄 속에서 헤멜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어오르는 욕심을, 발작하는 열기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악”이란 무절제한 걱정을 말합니다. 혀를 잘못 놀리는 것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혀는 죽이는 독이라고도 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니”(시140:3)

2. 혀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혀는 자주 변절하기 때문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약3:10, 11) 이는 자연의 중요한 철칙입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여 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형제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자연 세계와 같아져야 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입술(시34:1)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를 괴롭히는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혀를 함부로 놀려서 초래되는 실수는 다시 주어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19:14)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전2000운동

새벽기도회 설교 ②

이 종 윤 목사

야고보서 강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욥12:13). 모든 지식을 완성시키고 모든 행위가 완전하며 그의 심판은 무오해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가능성을 산출해내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1. 지혜있는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뇨”(약3:13)

지혜는 지능, 총명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특별한 영역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지혜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영적으로 반드시 지혜롭거나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악한 일에 머리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거나 악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자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막12:30).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롬2:2).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제4일

지혜있는 사람이 되라 (약3:13)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 즉 구원을 온전히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벧전1:13).

지혜있는 자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욥28:12; 잠4:5, 23; 호14:9). 우리는 미련하고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범사를 통찰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없는 사람도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은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은 무서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대하1:10).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다스리심을 경외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불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시111:10).

지혜는 회심하는 때 즉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때에 비로써 얻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1:30)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식의 발전은 마음의 활동에 의한 것이지만, 지혜의 발전은 영혼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 주변을 보게 하지만, 지혜는 항상 위를 보게 합니다. 지식은 관찰로 확장되지만, 지혜

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2. 지혜자의 증거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약3:13)

첫째, 지혜자는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이 속에서 용해되어 힘으로 나타나듯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관념의 집합체나, 단순히 종교적 예식만을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가운데서 선행을 산출해 내야 합니다.

둘째, 지혜는 온유함으로 보여집니다. 온유함이란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부터 오는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노를 노로 갚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벧전2:23).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7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성명 이계인 나이 50 봉사 부서 장년 2부 가브리엘찬양대 임직 년도 80년 학력 직업 중졸 사업(인쇄업)	 성명 장주석 나이 42 봉사 부서 중등 1부 협력다락방장 임직 년도 79년 학력 직업 대졸 공무원	 성명 장철환 나이 43 봉사 부서 청년 3부 임직 년도 79년 학력 직업 대학원졸 회사원	 성명 오인근 나이 62 봉사 부서 모세회장, 소망부 성경연구원 안내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국졸 상업
 성명 정태두 나이 46 봉사 부서 청년 3부 베드로전도회장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고졸 회사대표	 성명 권영학 나이 50 봉사 부서 장년 1부 바울전도회임원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중졸 상업	 성명 안석현 나이 39 봉사 부서 대학부 요한증경회장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대졸 회사원	 성명 이장하 나이 56 봉사 부서 장년 3부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고졸 상업
 성명 박덕양 나이 50 봉사 부서 장년 1부 초등 6부 임직 년도 80년 학력 직업 고졸 교직원	 성명 오석부 나이 64 봉사 부서 장년 4부 바울전도회회장 임직 년도 76년 학력 직업 고졸 보험회사	 성명 마도원 나이 57 봉사 부서 회계 임직 년도 85년 학력 직업 대졸 회사원	 성명 박성명 나이 38 봉사 부서 찬양대 요한 3 지회 임직 년도 83년 학력 직업 대졸 KBS 제2방송 PD
 성명 한형식 나이 42 봉사 부서 사랑부 청년부증경회장 임직 년도 78년 학력 직업 대졸 회사원	 성명 조용준 나이 42 봉사 부서 초등 6부 임직 년도 83년 학력 직업 대퇴 회사대표	 성명 김시주 나이 42 봉사 부서 중등 1부 베드로지회교구장 임직 년도 79년 학력 직업 고졸 사업	 성명 권석태 나이 55 봉사 부서 가브리엘찬양대 임직 년도 83년 학력 직업 대졸 회사원
 성명 유성남 나이 49 봉사 부서 베드로 1 지회 부회계 임직 년도 85년 학력 직업 대졸 충현교회 직원	 성명 이영일 나이 51 봉사 부서 장년 2부 임직 년도 78년 학력 직업 고졸 자영업	 성명 이기성 나이 43 봉사 부서 청년 1부 협력다락방장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고졸 두아패션대표	 성명 김인원 나이 43 봉사 부서 중등 1부 베드로17전도회 임직 년도 78년 학력 직업 대졸 회사원
 성명 장충균 나이 41 봉사 부서 영어교육부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대졸 회사원	 성명 김승곤 나이 42 봉사 부서 초등 2부 베드로 1 구재부장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대학원졸 건축자재	 성명 이실호 나이 42 봉사 부서 초등 3부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중퇴 상업	 성명 서문석 나이 44 봉사 부서 초등 6부 기획실봉사 임직 년도 87년 학력 직업 대졸 공무원
 성명 박문태 나이 55 봉사 부서 새계천교회 회계부 임직 년도 88년 학력 직업 대졸 상업	 성명 고종복 나이 46 봉사 부서 소망부 베드로임원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대졸 자영업	 성명 신종명 나이 43 봉사 부서 초등 5부 임직 년도 80년 학력 직업 중졸 회사원	 성명 박동엽 나이 39 봉사 부서 초등 4부 요한회장 임직 년도 83년 학력 직업 회사원
 성명 최정남 나이 44 봉사 부서 사랑부 베드로임원 임직 년도 85년 학력 직업 고졸 상업	 성명 이대길 나이 38 봉사 부서 청년 1부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대학원졸 동심대표	 성명 유상태 나이 46 봉사 부서 소망부 임직 년도 85년 학력 직업 고졸 상업	 성명 장봉순 나이 59 봉사 부서 장년 2부 바울회장 임직 년도 73년 학력 직업 중졸 상업
 성명 최정남 나이 44 봉사 부서 사랑부 베드로임원 임직 년도 85년 학력 직업 고졸 상업	 성명 이대길 나이 38 봉사 부서 청년 1부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대학원졸 동심대표	 성명 유상태 나이 46 봉사 부서 소망부 임직 년도 85년 학력 직업 고졸 상업	 성명 장봉순 나이 59 봉사 부서 장년 2부 바울회장 임직 년도 73년 학력 직업 중졸 상업

	성명 홍시오 나이 53 봉사 부서 회계 바울전도임원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대졸 회사원		성명 임창식 나이 38 봉사 부서 가브리엘찬양대 협력다락방장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대졸 고교교사		성명 황현철 나이 43 봉사 부서 장년 2부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고졸 상업		성명 배춘식 나이 50 봉사 부서 고등부 베드로회장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고졸
33		34		35		36	
	성명 석영식 나이 40 봉사 부서 가브리엘찬양대 교구간사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고졸 상업		성명 이성섭 나이 38 봉사 부서 중등 2부교사 협력다락방장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대졸 회사원		성명 김기철 나이 44 봉사 부서 중등 2부교사 베드로전도회장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고졸 상업		성명 이요섭 나이 42 봉사 부서 초등 6부 협력다락방장 임직 년도 83년 학력 직업 대학원졸 상업
37		38		39		40	

제35대 권사 후보자 명단

	성명 석정자 나이 50 봉사 부서 찬양대 전도회임원 임직 년도 79년 학력 직업 국졸 상업		성명 양선자 나이 51 봉사 부서 에스터 1 전도회장 찬양대 임직 년도 78년 학력 직업 대졸		성명 윤정미 나이 50 봉사 부서 초등 2부 아멘찬양대 임직 년도 78년 학력 직업 중졸 상업		성명 최태옥 나이 50 봉사 부서 장년 2부 다락방장 임직 년도 77년 학력 직업 고졸
1		2		3		4	
	성명 안 정 나이 56 봉사 부서 다락방장 여전도회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중졸		성명 이영숙 나이 50 봉사 부서 초등 4부 전도회임원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조혜순 나이 50 봉사 부서 청년 2부부감 다락방장 임직 년도 80년 학력 직업		성명 변경희 나이 52 봉사 부서 에스터 17전차장 다락방장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5		6		7		8	
	성명 조금자 나이 51 봉사 부서 무지개임원 임직 년도 78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안정희 나이 54 봉사 부서 찬양대 다락방장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김복련 나이 59 봉사 부서 다락방장 임직 년도 85년 학력 직업		성명 구자남 나이 50 봉사 부서 중등 3부 다락방장 임직 년도 83년 학력 직업 대졸 상업
9		10		11		12	
	성명 윤옥자 나이 52 봉사 부서 초등 1부 에스터교구부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대졸		성명 장춘매 나이 50 봉사 부서 실로암찬양대 에스터임원 임직 년도 83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안은희 나이 52 봉사 부서 다락방장 전도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김봉숙 나이 50 봉사 부서 에스터임원 다락방장 임직 년도 80년 학력 직업 대졸
13		14		15		16	
	성명 정숙연 나이 52 봉사 부서 에스터임원 다락방장 임직 년도 83년 학력 직업 대졸		성명 김인숙 나이 54 봉사 부서 임직 년도 80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최이수 나이 50 봉사 부서 새가족부교사 임직 년도 82년 학력 직업 대졸		성명 백영희 나이 55 봉사 부서 초등 1부 강대상꽃꽂이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고졸
17		18		19		20	
	성명 백숙자 나이 50 봉사 부서 찬양대 다락방장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이경효 나이 50 봉사 부서 사랑부 예전도회 임직 년도 78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조분자 나이 53 봉사 부서 다락방장 임직 년도 78년 학력 직업 중졸		성명 박순옥 나이 52 봉사 부서 임직 년도 77년 학력 직업 국졸
21		22		23		24	

	성명 오화자 나이 50		성명 박정구 나이 51		성명 홍수임 나이 64		성명 이용옥 나이 63
25	봉사 부서 다락방장 찬양대	26	봉사 부서 식당	27	봉사 부서 다락방장 전도	28	봉사 부서 부산부광교회 권사
	임직 년도 81년		임직 년도 81년		임직 년도 84년		임직 년도
	학력 직업 고졸		학력 직업 국졸 교회직원		학력 직업 고졸 회사원		학력 직업 국졸
	성명 정정자 나이 56		성명 서화자 나이 51		성명 박옥순 나이 53		성명 유호순 나이 50
29	봉사 부서 고등부 에스더 17지회장	30	봉사 부서 호산나찬양대 전도부차장	31	봉사 부서 간사 다락방장	32	봉사 부서 청년 1부 루디아전도회회장
	임직 년도 89년		임직 년도 80년		임직 년도 82년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고졸		학력 직업 중졸		학력 직업 대졸		학력 직업 중졸
	성명 김은영 나이 50		성명 이정순 나이 52		성명 신원택 나이 62		성명 장귀녀 나이 60
33	봉사 부서 초등 6부	34	봉사 부서 다락방장	35	봉사 부서 한나교구부 차장 다락방장	36	봉사 부서 탁아부 새중앙교회집사
	임직 년도 86년		임직 년도 77년		임직 년도 79년		임직 년도 86년
	학력 직업		학력 직업 국졸		학력 직업 국졸		학력 직업
	성명 채귀순 나이 59		성명 김영애 나이 61		성명 조항숙 나이 58		성명 오춘실 나이 57
37	봉사 부서 한나 1 지회	38	봉사 부서 한나교구부장 타교권사	39	봉사 부서 전도 다락방장	40	봉사 부서 다락방장 에스더임원
	임직 년도 84년		임직 년도		임직 년도 88년		임직 년도 83년
	학력 직업 국졸		학력 직업 보험회사		학력 직업 고졸		학력 직업 중졸 회사원
	성명 전옥희 나이 58		성명 권영옥 나이 65		성명 황순정 나이 65		성명 심상순 나이 54
41	봉사 부서 전도 봉천제일교회집사	42	봉사 부서 다락방장	43	봉사 부서 다락방장 전도회임원	44	봉사 부서 다락방장
	임직 년도 88년		임직 년도 85년		임직 년도 85년		임직 년도 81년
	학력 직업 고졸		학력 직업 고졸		학력 직업 국졸		학력 직업 중졸
	성명 전정자 나이 55		성명 정경희 나이 58		성명 최태희 나이 63		성명 도성희 나이 53
45	봉사 부서 탁아부	46	봉사 부서 탁아부	47	봉사 부서 다락방장 전도회	48	봉사 부서 찬양대 다락방장
	임직 년도 80년		임직 년도 80년		임직 년도 85년		임직 년도 80년
	학력 직업 국졸		학력 직업 국졸		학력 직업		학력 직업 고졸
	성명 김계수 나이 59		성명 김숙희 나이 51		성명 박옥림 나이 50		성명 김현숙 나이 64
49	봉사 부서 다락방장 타교회집사	50	봉사 부서 장년 2부	51	봉사 부서 예배위원회	52	봉사 부서 부산부전교회 권사
	임직 년도 88년		임직 년도 85년		임직 년도 81년		임직 년도
	학력 직업 국졸		학력 직업 고졸		학력 직업 고졸 충현주단(포목집)		학력 직업
	성명 유재춘 나이 50		성명 최정순 나이 55		성명 이화정 나이 63		성명 이득해 나이 53
53	봉사 부서 '90 루디아회장	54	봉사 부서 에스더전도부 교사	55	봉사 부서 한나전도회 산봉산교회권사	56	봉사 부서 중등 3부
	임직 년도 81년		임직 년도 85년		임직 년도		임직 년도 85년
	학력 직업 고졸		학력 직업 국졸 보세공장		학력 직업		학력 직업 대졸 학원 원장
	성명 김철 나이 59		성명 송희연 나이 65		성명 심의숙 나이 63		성명 이인순 나이 53
57	봉사 부서 다락방장	58	봉사 부서 전도회 다락방장	59	봉사 부서 전도회 다락방장	60	봉사 부서 전도회 다락방장
	임직 년도 86년		임직 년도 84년		임직 년도 85년		임직 년도 84년
	학력 직업 상업		학력 직업 국졸		학력 직업 고졸 일본어강사		학력 직업 국졸

	성명 유금례 나이 56 봉사 부서 전도회 다락방장 임직년도 85년 학력 직업 국졸		성명 신정순 나이 55 봉사 부서 찬양대(호산나) 다락방장 임직년도 84년 학력 직업 고졸 태평양화학		성명 이강자 나이 50 봉사 부서 전도회 다락방장 임직년도 87년 학력 직업 상업		성명 박복동 나이 56 봉사 부서 탁아부 찬양대 임직년도 86년 학력 직업 국졸 상업
	성명 김영순 나이 66 봉사 부서 전도회 다락방장 임직년도 85년 학력 직업		성명 김호녀 나이 57 봉사 부서 다락방장 전도회 임직년도 86년 학력 직업 중졸 상업		성명 손홍숙 나이 57 봉사 부서 탁아부 찬양대 임직년도 86년 학력 직업 국졸		성명 강정일 나이 52 봉사 부서 탁아부 다락방장 임직년도 87년 학력 직업
	성명 이정자 나이 53 봉사 부서 교사 에스더임원 임직년도 83년 학력 직업 대졸		성명 김옥희 나이 60 봉사 부서 청년 1 부 전도회 임직년도 80년 학력 직업 고졸 회사원		성명 양명자 나이 50 봉사 부서 전도회 다락방장 임직년도 86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양혜원 나이 51 봉사 부서 다락방장 전도회 임직년도 76년 학력 직업 대졸
	성명 설복연 나이 53 봉사 부서 찬양대 에스더 1 지회 임직년도 88년 학력 직업 대졸		성명 김연옥 나이 51 봉사 부서 초등 6 부 전도회 임직년도 79년 학력 직업 국졸		성명 이강분 나이 52 봉사 부서 전도회 다락방장 임직년도 83년 학력 직업 국졸		성명 백옥심 나이 51 봉사 부서 탁아부 전도회 임직년도 86년 학력 직업 국졸
	성명 양명희 나이 51 봉사 부서 탁아부 전도회 임직년도 81년 학력 직업 중졸		성명 전행자 나이 51 봉사 부서 찬양대 에스더회계 임직년도 84년 학력 직업 중졸		성명 김인순 나이 60 봉사 부서 한나여전도 다락방전찰 임직년도 85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최선옥 나이 61 봉사 부서 다락방장 한나교육부차장 임직년도 84년 학력 직업
	성명 한순희 나이 56 봉사 부서 다락방장 본교집사 임직년도 89년 학력 직업 대졸		성명 권영교 나이 53 봉사 부서 에스더전부장 다락방장 임직년도 89년 학력 직업 대졸		성명 윤정식 나이 58 봉사 부서 장년 2 부 전도회 임직년도 90년 학력 직업		성명 김옥남 나이 54 봉사 부서 에스더부회장 타교회집사 임직년도 88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백희숙 나이 55 봉사 부서 영어예배부 에스더교육부장 임직년도 학력 직업		성명 박인순 나이 52 봉사 부서 에스더전도부장 다락방장 임직년도 89년 학력 직업		성명 송태영 나이 60 봉사 부서 한나 1 전도회 다락방장 임직년도 87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안태숙 나이 53 봉사 부서 예배안대 에스더부회장 임직년도 85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윤희자 나이 68 봉사 부서 전도회 다락방장 임직년도 89년 학력 직업 중졸		성명 박영숙 나이 58 봉사 부서 한나 1 지회 타교회집사 임직년도 88년 학력 직업 고졸		성명 이석정 나이 66 봉사 부서 영어교육부 전도회 임직년도 87년 학력 직업 고졸 전 쟁실국교교사		성명 이명균 나이 55 봉사 부서 다락방장 에스더 11 지회재장 임직년도 88년 학력 직업
	성명 김분식 나이 61 봉사 부서 다락방장 전도회 임직년도 87년 학력 직업 중졸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으시다. 스쳐가시는 듯하다가도 모세를 부르시어 출애굽을 명하셨고, 목동 다윗을 깨워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셨다. 광야와 사막의 모진 땅 팔레스타인을 끌어서 가나안을 만드셨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으시고 필연만 있으시다.

1953년 어느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실 뜻을 감창인 원로목사에게 보이셨다.

김 목사는 하나님만 아시고 세상은 모르시는 분이셨고 하나님만 무서워하시고 세상은 무서울 것이 없으신 분이셨다. 주님의 명령 앞에는 순종밖에 없음을 확신하신 까닭에, 1953년 9월 6일 18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날의 충현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깊은 영감과 영도력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성전 시대를 맞아 이종운 목사를 위임목사로 모시고 세계 복음화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일치된 영으로 헌신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이종운 위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천국일꾼 양

● 교회 설립 38주년을 기념하며 ●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

김 광 신 장로
(기획위원)



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의 살 길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고 새벽기도운동인 홍해작전을 4차에 걸쳐 실시하여 한국 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그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세미나를 초교파적으로 실시하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44개국의 1,300여 명이 참여한 아시아선교대회를 우리 교회가 주최하여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에 새로운 장을 제시하였고, 김치(KIMCHI) 세미나

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목회자에게 영적 성장의 도전을 주었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 복음화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였다. 화합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충현올림픽을 개최하여 모범적인 공동체의 성숙을 보여주었으며, 제자훈련을 통한 예수제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사명과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하시는 바를 바로 깨달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보아 몇 가지를 더 언급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대형 교회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입장에 서게 된 이상 지도자적 교회의 위치를 각각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세로 구체적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리들을 다른 교회들에게 바로 전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작은 일 하나, 사소한 사항 하나를 결정하고 시행할 때에도 그 결정의 파급 효과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삼대 목표인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사명 완

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장·단기 계획의 수립과 그의 완벽한 집행을 통하여 교회의 본래 목적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용 교재 개발과 같은 중요한 일은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에 끝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촌시대를 맞아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소련, 일본과 북한의 선교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이의 집행이 요청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치리자와 감동자로 세움을 입은 장로들의 영감있는 비전 제시와 끊임없는 질적 변화이다. 과거의 축적된 경험과 권위와 함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누구보다 앞서가는 선각자의 의식 구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모범적인 교회로 발돋움하여 가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하나 둘씩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친 교회로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나갈 것이다.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공동선언문

우리 한·일 양국 기독교청년 170명은 1991년 8월 서울 충현교회에 모여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남겨놓은 이때 혼돈스럽고 급변하는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내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개인을 위한 영적 훈련과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셔서 복음을 우리 양국의 각 지역과 아울러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번 대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아시아 지역 교회 청년들의 긴급하고도 매우 가치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의 고백

1. 우리는 신, 구약 성경의 절대무오한 권위와 오직 성경 안에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의 뜻을 계시하셨음을 믿는다.
2.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

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줄 믿는다.

3.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의 중요성과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미래지도자로서의 기독교청년들이 이 명령수행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순종해나가야 할 것을 믿는다.

4.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적, 문화적, 기타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족함을 믿는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즉 복음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개인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도록 힘쓴다.

2. 우리는 자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되 특히 복음전도의 역사와 현장을 연구하며, 아울러 그것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연구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3. 우리는 선교의 비전과 세계를 위한 미래지도자로서의 비전을 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씀 연구를 비롯한 제반 경건훈련

과 특별히 지도력의 개발에 힘쓴다.

4.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일 양국 청년들의 협력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과 교회와 선교단체와 국가의 연합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이번 대회의 결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대화하고 노력한다.

6.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줄 알고 책임있게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국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기 원하심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일에 다른 형제들도 동참할 것을 소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위해 더욱 전력할 것이다.

1991년 8월 27일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참가소감문 ①

복음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시카와 요시히레

처음에는 ‘한·일 기독교인 교류대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중학교 교사인 나는 마침 여름방학 중이라 해외에 나가는 것도 처음이라 참가할 것을 결심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시설 등을 견학하는 중에 일본은 한국에 커다란 죄를 범한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나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 예수 안에서 용서해주세요”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청년들과의 교제, 강의, 성회, 새벽기도회 등 은혜가 넘치는 바쁜 일정으로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은 뜨겁게 불탔다. “너무 바빠서 피곤할 틈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성회중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교대명령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하신 말씀과 그리고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라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에게 여러가지를 생각케 했다. 강의와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중학교 교사로 사회 생활을 하는 나 자신의 안이하고 세속화한, 그저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이름뿐인 신자인 내 모습을 똑똑하게 보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1억3천만명의 일본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받을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필자가 "성경적 교회 갱신의 원리"라는 주제 강연을 한 후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감동적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 체계를 갖출 계기가 되었다는 좋은 반응과 찬사도 받았다. 소그룹 회의에서도 필자는 새벽기도와 흥해작전이 교회 갱신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해줌으로 기도 운동에 관심을 보인 많은 지도자들에게 많은 질문과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의 크라이막스는 토요일 오후에 있었다. 400여 명의 각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브라스 밴드를 앞세우고 오색이 찬연한 프랑카드를 들고 체코에서 국경선을 넘어 폴란드로 들어가는 예수 대행진 순서가 그것이다. 심한 폭우 속에서도 장엄한 목회자 행렬은 보는 이들을 긴장케 했으며 길게 늘어진 가운이 비에 젖어 흐느적거렸지만 개의치 않은 행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간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기도 했다. 약 두 시간에 걸친 대행진 코스에서 우리는 국경을 넘기 직전 별도로 준비된 버스를 타

■ 동구라파 선교여행기 ④

마게도나의 부름에 응답한 한국 교회

이 중 윤 위임목사



고 다른 루트를 통해 폴란드에 입국을 했다.

폴란드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로 알려진 루터파 교회는 정말 웅장하고 품위가 있어 보였다. 우리는 국경선에서 지체되어 이미 한 시간 전에 시작된 예배에 늦게 도착함으로 입주의 여지가 없이 들어선 성도들을 헤집고 혈레벌떡 뛰어 들어가야만 했다. 설교자의 미착으로 예배는 여러 순서를 계속 추가시키고 있는 듯 싶었다. 시편 23편을 읽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필자는 자신도 모르게 음성이 높아져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는 마침내 울음이 폭발되고 말았다.

우리 일행은 폴란드 교회 지도

자들의 정중한 대접을 받고 곧바로 버스로 바르샤바를 향해 갔다. 토요일 밤 땅거미가 대지를 뒤덮은 폴란드의 산야를 눈을 부릅뜨고 보려던 노력이 헛된 것임을 안 다음에야 우리는 조용히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한국에 두고온 교회와 민족 교회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에 연결되기를 기원하였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오전 10시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다. 김치(KIMCHI) 동문 두 분 목사님 교회로 우리 일행은 각각 흠어져 예배를 드린 후 폴란드 교회 상황과 전망을 의논했다. 필자는 여기서도 다른 곳과 다를 것이 없이 열심히 기도(특히 새벽기

도와 흥해작전을 강조함), 성경적 설교, 그리고 일관된 프로그램(교육, 선교, 구제), 목회 비전을 설교를 통해 제시해주었다. 히틀러가 지도상에서 바르샤바를 없애려고 방화와 파괴를 한 탓인지 도시가 아직도 죽은 시체같이 생동감이 없는 것 같았다.

두 주간의 동구라파 선교 여행을 통해 설교 9회, 강의 4회, 공식회의 5회, 수많은 개인 면담을 하면서 아직도 열린 문이 좁은 알바니아와 특히 굳게 닫힌 한반도의 복음땅에 들어가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신학교를 어디에 세울까를 의논하며 집회와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필자와

동행했던 선교단원들의 헌신적 봉사과 겸손한 참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본을 보여주었던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우선 선교단이 만든 동구권을 위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한국 교회에 제시함으로 이 여행을 마무리 한다.

1. 성경 보급 및 문서 전도 활동
2. 무너진 교회당 신축
3. 지도자 양성과 목회자 재훈련
4. 신학교 건립과 운영
5.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
6. 이단과 거짓 교훈에 대한 대책 마련
7. 지도권의 바른 이양(옛 지도자로부터 새 지도자로)
8. 새로 믿기 시작하는 이들의 수적 증가
9.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의 바른 해결
10. 지난날의 박해자(공산당원들)에 대한 용서
11. 비전있는 교회
12. 21세기가 되기 전 전유럽에 복음 확산(끝)

프라하에도 봄은 오는가

푸른 들판
이끼진 나무 숲에
봄바람 불어인다.

나치의 압박과
반종교개혁의 잔해와
공산주의 살인마의
삼중고를
뉘라서 견뎠는가
퇴학, 면직
긴 날들의 연금
오허려
너를 바위같이 하였는가
이제

김 연 이 전도사
(출판부, 중등1부 지도)

대회를 열자
열방이 모여
주를 경외하고
산들이 일어나
주를 경배하며
바다가 박수치며
주를 찬양하도록
우리
모두 모여
대회를 열자
열었던 동토에
새봄이 온다네

교역자 전화 번호 안내

목 사	번 호	전 도 사	번 호
김 영 구	562-0778	최 순 복	552-4603
윤 용 규	562-6449	구 명 신	568-1485
김 성 윤	554-9469	정 연 회	794-8363
김 학 진	553-9569	현 정 남	552-9914
마 일 수	561-4130	정 복 인	566-7213
송 태 근	558-4182	장 영 자	553-6995
김 해 규	558-3195	유 순 화	553-6994
최 인 근	566-4879	김 연 이	542-2535
김 창 수	561-5374	임 태 주	553-6761
정 기 봉	567-3402	최 명 자	556-4359
이 조 응	487-0127	김 정 순	989-6706
신 표 근	566-3867	김 정 자	447-6554
안 경 소	557-2762	장 해 순	554-1394
김 양 흠	569-5228	김 주 아	554-2296
김 찬 곧	561-5396	배 옥 인	534-1028
이 흥 성	558-2747	정 인 선	552-2440
심 길 웅	552-7750	최 지 해	552-7514
김 용 기	562-8232	황 정 순	566-7213
김 광 국	562-4872		
장 경 철	554-4779		
홍 창 민	549-8880		

비전2000운동에 참가하고

남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한 정 회 권찰(제3교구)

이번 비전2000운동 새벽기도회는 믿음이 연약한 저와 제 남편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전2000운동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때까지 만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1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당장에 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예수 믿기를 미루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왔던 저는 자연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한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지난 7월 22일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란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등록시킨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비전2000운동에 참석토록 하셨습니다. 등록한 지 몇 주 지난 예배 시간에 이종윤 목사님께서 비전2000운동에 관해

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온교인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유의 말씀을 듣고, 남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전2000운동에 참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첫날부터 새벽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저를 깨우고, 다락방 식구들을 위하여 차량 봉사까지 해주었습니다. 또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동안에는 찬송테이프를 틀어놓고 열심히 따라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은 이러한 남편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도 목사님께서 인

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였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아멘"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남편을 보면서 기도 응답을 안해주신다고 불평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믿고 구하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모두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 총동원의 날에는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거둬야의 축복을 받은 아버지를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고,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강화의 소리

- ◎... 1953년 9월 6일 18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린 후 오늘에 이른 충현교회. 너는 진정한 행복자란다.
-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모범적인 교회되게 합시다.